

‘15.5’계획 건의 요점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2025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고수준의 대외개방 확대 및 협력상생의 새 국면 개척

전원회의는 ‘15.5’계획 기간 중점 임무를 포치,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해 협력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것을 제기했다.

● 제도령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며 국제 순환을 확장하고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여 세계 각국과 기회를 공유하고 공동 발전해야 한다.

● 자주적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무역 혁신 발전을 추진하며 량방향 투자 협력 공간을 넓히고 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 및 향촌 전면 진흥 착실 추진

전원회의는 ‘15.5’계획 기간 중점 임무를 포치, 농업농촌 현대화를 가속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착실히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 ‘삼농’(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을 전당 사업의 중점으로 삼는 것을 고수하며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고 빈곤 해탈 공략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확대하며 농촌이 현대 생활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추진함으로써 농업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 농업의 종합생산능력과 질적 효익을 높이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강농·해농·부농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역 경제 구조 최적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전원회의는 ‘15.5’계획 기간 중점 임무를 포치, 지역 경제 구조를 최적화해 지역 균형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제기했다.

●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지역 주요 전략, 주체 기능구 전략, 신형의 도시화 전략의 협동 효과를 발휘하고 주요 생산력 배치를 최적화하며 중점지역의 성장 거점 역할을 잘 발휘해 우세 상호 보완, 고품질 발전의 지역 경제 구조와 국토 공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지역 발전의 균형성을 강화하고 지역 련동 발전을 촉진하며 국토 공간 발전 구조를 최적화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의 도시화를 심화 추진하고 해양 개발·리용·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전민족 문화혁신과 창조활력 고취, 사회주의 문화 번영 발전 추진

전원회의는 ‘15.5’계획 기간 중점 임무를 포치, 전 민족의 문화혁신과 창조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 문화를 번영 발전시킬 것을 제기했다.

● 의식형태 분야에서 맑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견지하며 넓고 깊은 중화문명에 뿌리를 내리고 정보기술 발전 대세를 따라야 한다. 강대한 사상적 인도력, 정신적 결집력, 가치적 감화력,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새시대 중국적 영향력을 갖춘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문화강국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발양하고 실천하여 문화사업의 대변영을 도모해야 한다. 문화산업 발전을 다그쳐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시사중술]

미국 연방정부 ‘폐쇄위기’ 사상 최장 기록 마무리



11월 12일, 미국 뉴욕의 한 음식 배급소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있다.

/ 신화넷

현지시간으로 12일 밤, 미국 하원은 이미 상원에서 통과된 연방정부 ‘폐쇄위기’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35일간 지속된 기록을 깼다. 이로 인해 100만명 이상의 연방 직원들이 임금 체불로 재정적 압박에 직면했고 심지어 생계를 위해 다른 일 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그전에도 여러차례 ‘폐쇄위기’ 위기에 빠진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은 이전과 달랐는데 ‘폐쇄위기’ 지속 시간이 더 길고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충격도 더 컸다. 10월 1일 ‘폐쇄위기’가 시작된 후 량당이 11월 초까지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리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 이번 정부 ‘폐쇄위기’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35일간 지속된 기록을 깼다. 이로 인해 100만명 이상의 연방 직원들이 임금 체불로 재정적 압박에 직면했고 심지어 생계를 위해 다른 일 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폐쇄위기’는 또한 항공편 대면적 지연 또는 취소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공항 운영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미국항공협회에 10월 1일 정부 ‘폐쇄위기’가 시작된 이후 약 520만명의 항공 여행객들이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욱 광범위한 관심을 받은 것은 창설 60년의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중단된 것이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이 프로그램은 전 미국의 약 4,200만명을 포괄하는데 이들 대다수의 소득은 빈곤선 이하이다. 식품 구호금 중단은 수천만 저소득 계층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정부 ‘폐쇄위기’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의회 량당 지도자들은 서로 비난하면서 ‘책임 전가’에 몰두했다. 미국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비록 의회가 조달법안

을 통과시켰지만 량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의료 보조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 근본 원인은 량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폐쇄위기’를 리용해 각자의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려 했을 뿐 민중이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피면시키기 위해 ‘폐쇄위기’를 종료시킬 방법을 생각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중은 ‘폐쇄위기’의 무거운 대가를 떠안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잃었다. 미국 N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트럼프정부 취임 약 10개월 동안의 성과에 실망했다고 답했으며 정부가 경제 관리 특히 인플레이션과 높은 생활비 대응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신문》이 얼마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민중은 미국이 심각하게 분열되었다고 인정했으며 응답자의 66%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혀 미국 민중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기 미래와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났다. 《정치신문》은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정서는 국가 정치 량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면서 응답자의 59%가 미국 정치 량극화가 5년전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인정했다.

미국 의회 예산판공실은 6주간의 ‘폐쇄위기’가 미국에 약 1,10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했다. 칸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제리 모란은 정부 ‘폐쇄위기’가 미국 유권자와 경제에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위협 신호 즉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동반자로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표명했다.

/ 신화넷

외교부:

일본 대만해협 무력 개입 시 결정타 안길 것

일본 수상 다카이치 사나에는 최근 “대만에 대한 중국 대륙의 무력 사용이 일본의 ‘존망 위기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어 국회 질의에서 “해당 발언은 일본 정부의 립장에 부합되는바 철회하거나 취소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일본 수상이 최근 국회에서 대만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로골적인 도발 발언을 하며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엄중한 항의와 강력한 항의를 표명한 후에도 여전히 집착하며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우의 잘못

된 언행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중일 4대 정치문건의 정신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며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 중국의 핵심리익에 도전하며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본이 감히 무력으로 대만해협 상황에 개입한다면 이는 침략행위가 될 것인바 중국은 반드시 정면으로 맞서 결정타를 안김으로써 유엔헌장과 국제법이 부여한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하고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제방송

중국선박그룹, 한국 선주에 7번째 자동차 운반선 인도

중국선박그룹 산하 광선국제(广船国际)가 한국 H-LINE 해운을 위해 건조한 7번째 자동차 운반선이 11일 광주 남사에서 인도됐다. 이 선박은 8,600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이중연료 자동차 운반선이다.

앞서 해당 조선소는 H-LINE 해운에 7,000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이중연료 자동차 운반선 4척과 8,600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이중연료 자동차 운반선 2척을 인도한 바 있다. 이렇게 인도된 7척의 선박은 모두 한국의 현대글로벌비(물류회사)가 운영하는 선박들이다.

현대글로벌비 상무 권치오는 “앞서 인도된 6척은 모두 운항중이며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자동차 운반선 건조 분야에서 중국 조선사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 선박들은 모두 계약 기간보다 앞당겨 2024년부터 차



11일, 광선국제가 한국 H-LINE 해운을 위해 건조한 7번째 자동차 운반선이 광주에서 인도됐다.

/ 신화넷

레로 H-LINE 해운에 인도되기 시작했다.

11일 인도된 자동차 운반선의 이름은 ‘글로벌비 트리니티’호이다. 선박

/ 신화넷

